

“의의 태양이여, 우리 시대에 솟아 오르리라”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 그 당시와 오늘 -

- 범죄자와 죄의 희생자를 위하여 -

위르겐 몰트만

“교회의 바벨론 유수”,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1520년 루터가 작성한 위대한 종교개혁 문서들에 포함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당시에든 즉시 폭넓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교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19세기에 헤겔이 칭찬했던 것처럼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개신교를 “자유종교”가 되게 하였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는 하나님 경험을 어마어마한 자유경험으로 체험하는 법을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자유란 무엇인가? 내적인 자유인가 아니면 외적인 자유인가? 사상의 자유인가 아니면 민주적인 자유인가? 아니면 자유는 나눌 수 없는 포괄적인 것인가?

그리고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자유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인가?

그리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다. 즉, 죄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악으로부터만의 자유인가? 아니면 우리가 겪게 되는 악으로부터도 자유인가?

그리고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자기희생적으로 이웃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개인적인 봉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지구에 살아야 할 생태학적으로 정의의 위를 위한 것이기 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통한 자유이며 누구를 통한 자유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자유를 주는가?

루터는 자신의 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소“논문”(Traktat)이라고 불렀는데, 이 소논문이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철저히 지역적인 것으로 츠빅кау(Zwickau)라는 소도시의 태수에게 헌정된 것이었다. 이 소도시에서는 1520년에 석사였던 아그란(Agran)이 이미 개신교적인 설교를 하고 있었다. 루터는 아직 여전히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사였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의 학술논쟁은 하나의 논문처럼 전적으로 학문적인 것으로 착수된 것이었다. 즉, 루터는 두 개의 테제 (praepositiones)를 제시하는데, 그 둘은 상호 모순된다 것처럼 보인다:

1.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물의 자유로운 주인이며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으며,
2.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봉사하는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복종한다.”

이 두가지 테제에서 루터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획득하고 수여한 자유”를 전개하고자 한다. 즉, 십자가에서 획득하고, 말씀과 성례전에서 수여한 자유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루터는 이 외관상 대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두 테제를 30절로 나누어 전개한다. 그리고 30절에서 환호성과 같은 다음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보라! 이것이 바로 의롭고도, 영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인 자유이다. 죄와 율법들과 계율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게 만드는 바로 그 자유이다. 하늘이 땅을 능가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자유를 능가하는 바로 그 자유이다.”

나는 이러한 사고과정을 간단히 따라갈 것이며 현재적인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런 다음 제2부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해방에 관한 루터의 가르침을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자들의 해방이라는 나의 생각으로 보충할 것이다. 왜냐하면 서구 기독교에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가해자 위주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어서 희생자들을 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죄의 노예들을 위해서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가 있고, 개신교에서는 믿음 안에서의 죄용서 교리가 있는데, 죄의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독일의 가톨릭 교회에서 그리고 기숙사 학교에서 그 동안 숨겨져 있다가 오늘날 폭로되고 있는 성폭력 사건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죄인의 칭의에 따르면 우리는 피해자의

칭의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죄인만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의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이는 구약성서의 시편들 안에 잘 드러나 있다.

1. 루터의 사고과정

자유와 노예성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루터는 우선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본성에 관하여 말한다. 즉, 영적이며 내적인 본성과 육체적이며 외적인 본성이 그 둘이다. 영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인간, 새사람, 내적인 인간”으로 불리며, 그러나 혈과 육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인간, 옛사람, 외적인 인간”으로 불린다. 여기서 루터는 플라톤적인 영-육-이원론을 새사람과 옛사람, 영과 육에 관한 바울의 갈등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어거스틴처럼 혼동스럽게 사용되기도 한다.) 이로써 루터는 그 어떤 외적인 것도 인간을 내적으로 자유롭게 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육체와 악은 다음과 같이 육적이며 외적이다: “이러한 사물들의 그 어떤 것도 영혼을 해방하거나 구속할 정도로 또는 경건하게 만들거나 악하게 만들 정도로 영혼에까지 미치지 못한다.”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영혼을 돕거나 해치지 못한다. 그런 한에서 이것은 특별히 성서적인 것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영혼이 “경건하고 자유롭게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하늘과 땅에서 거룩한 복음 즉,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의도를 루터는 가지고 있다(제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에서 영혼은 자유하며 복되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은 “확고한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자세를 취하라, 그리하면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이며, 너의 타락이 극복된다. 너는 의롭게 되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은 모든 축복을 수반하며 우리에게서 모든 비극을 제하게 된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루터는 신앙을 수동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최대한 능동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즉, 사람들 가운데 신실함과 신앙은 유효하다. 말하자면 이렇다: 내가 당신을 믿는다면, 나는 당신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당신을 진정한 분으로 여긴다는 의미이며, 나의 신뢰를 통하여 최상의 인정을 당신에게 보인다는 의미이다. 당신이 옳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당신의

이름을 존귀히 여김을 의미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그를 기만적이며 신실하지 않은 사람,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치욕이다. 즉, 나는 그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그를 신뢰하며,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며, 그의 말씀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 신앙은 제1계명을 충족시키며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신앙의 상호교환성에 대한 루터의 결론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즉, “만일 영혼이 하나님에게 진리를 헌납하며, 영혼이 자신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은 다시금 그 영혼을 높이며 그 영혼을 경건하며 참되다 여기신다.” 이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며,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통하여 그 영혼을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는 영혼에게 온다. “올바른 신앙으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합하여 그 말씀의 모든 덕목들이 그 영혼의 것이 되며, 또한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제10절)

제12절에서 루터는 신앙 안에서 영혼과 하나님의 합일에 관한 이러한 생각들을 최고조로 전개한다. 좋은 의미의 어거스틴 전통에서 루터는 영혼이 하늘에 있는 자신의 신랑과 혼인한다는 신비적인 표상을 수용한다. 만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된다면, 신앙은 영혼을 그리스도 자신과도 연합시킨다. 이는 마치 “신부가 자신의 신랑과” 연합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한 몸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몸은 다음과 같이 상호교환을 통한 연합이다: 즉,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영혼 자신의 것이 된다. 또한 영혼에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선과 축복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영혼의 것이 된다. 반면에 영혼은 모든 부덕함과 죄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즐거운 교환”이다. 즉, 그리스도는 영혼이 지니고 있는 죄, 저주, 비극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것들을 잠식시킨다. 반면에 영혼은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된다. “이것은 신명나는 사업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서는 부요하며, 존귀하고 거룩한 신랑 그리스도가 빈약하며, 천하고 악한 보잘것 없는 창부를 신부로 맞아들여서, 모든 악으로부터 그녀를 해방시키고, 모든 선으로 그녀를 꾸미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악들이 그 신부를 저주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죄악들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삼킨바 되었기 때문이다.” 죄를 행하는 자들이 영원히 “범죄자”가 되어야만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부분을 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싶다: 즉, 루터는 자신의 논문을 하나님과 영혼에 관한 어거스틴적인 순환으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루터는 하나님과 영혼을 연결하는 그러한 그림을 다음과 같이 심화시킨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의 신앙에 관한 그림으로 심화시킨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새겨넣고 말씀을 닦게 된다. 영혼의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에게 의를 돌린다. 이로부터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상호교환적인 칭의가 뒤따른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혼이 만나며 하나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루터에게 있어서 초월적인 영혼신비설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실제적인 그리스도 인식을 의미한다. 즉,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데, 이는 믿는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자유와 충만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이다. “즐거운 교환”은 고독한 영혼의 극치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한 영혼의 극치는 중세의 신비학 또는 현대의 명상수행들 가운데서처럼 하나님의 비밀에 닿으려고 시도하지만 루터의 “즐거운 교환”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루터가 말하는 “즐거운 교환”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영혼들을 자신의 고난과 부활 속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신앙 안에서 일어난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영혼의 저주받은 죄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부활 속에서 그리스도는 영혼에게 자신의 자유를 주며 자신의 풍성한 생명을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루터는 어거스틴적인 영혼-신학의 굴레를 깨뜨린다. “제12절”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적인 그리스도-신학의 출발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루터에게로 돌아가 보자.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자유로운 주인이요 그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 루터의 첫 번째 테제이다. 이 테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이는 다음과 같은 세계통치의 공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이 땅의 사람들처럼 만물을 필요한만큼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만물을 육적으로 능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고 또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루터의 첫 테제는 생명에 대한 영적인 통치이자 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믿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여 제사장”이며, 만물 위에 뛰어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도록 만물이 돕는한, 만물은 그리스도인들 아래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루터는 그에 해당하는 바울 서신서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전 3:21-23)

2.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8:38-39)

그러나 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돕는데 봉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
리스도인에게 “복종하는” 것인가? 그 가장 깊은 이유를 루터는 고전15:54-57절
에 따라 죽음과 죽음의 권세들을 이기는 생명의 부활승리에서 보고 있다: “사망
이 승리에 삼킨바 되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
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루터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인 왕국이나 글로벌화
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세계통치가 아니다. 오히려 신앙 안에서 이루어
지는 다음과 같은 초월적인 삶의 경험이다: “모든 것이”, - 이 말은 내가 만나게
되거나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즉, 생명과 사망, 즐거움과 고난 등 모든 것을 의미
한다 -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좋거나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 모든 것은 내가 선
을 이루도록 봉사한다. 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자유이며 힘이다.”
루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는 어거스틴을 기억하게 한다. 어거스틴은 다
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자문한다: “내 죄들도?” 내가 선을 이루도록 봉사하는가?
그리고 믿음 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그렇다. 내 죄들도!”

믿음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요 제사장들이다.” 모
든 그리스도인들이 왕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최선을 이루도록
봉사하기” 때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이다. 루터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보
편적 제사장직”을 왕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왕직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능통하게 되지만, 제사장직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능통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하고자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제16절)

그러나 인간의 신앙으로부터 실제로 그런 엄청난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인간은 믿음 안에서 어느정도로 멀리 나아갈 수 있는가? 루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전개해왔던 모든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신앙에 인정한다. 그러나 루터는 경험적인 신앙의 약점 또한 알고 있었다. 따라서 루터는 “저 세계” 즉, 오고있는 세계의 완성의 관점에서 신앙 안에서의 시작과 성장과 확장을 강조한다. “이 땅에는 단지 시작과 확장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작과 확장은 저 세상에서 완성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믿는자들은 단지 “성령의 첫 열매들을” 경험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성장과 확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바로 여기에서 루터의 두 번째 테제가 투입된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섬길 수 있는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복종한다.” 비록 사람이 믿음으로 이미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며, 자신의 육체를 다스려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 “바로 거기에 이제 실천이 시작된다.”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을 위하여 “자유로운 사랑으로 댓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행한다.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선행을 하지 않으며, 인정받기 위해서도 선행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이미 믿음 안에서 의롭고 선하며, 인정받고 복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제 오직 이웃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한다. 바로 그것이 순수한 사랑, 사심없는 사랑이다.

이를 위하여 루터는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들에 관한 비유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인격과 선행을 구분한다. 선행은 더 이상 선한 인간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선행을 만든다. 앞서 시작하면서 루터가 영혼에 관하여 말하였던 것이 이제는 인간의 인격에 관하여 유효한 것이 된다. 즉, “모든 선행들에 앞서 인격이 먼저 선하고 경건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행들은 경건하며 선한 인격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선하거나 악한 행위들은 인간의 인격을 선하게도 착하게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인격이 선하거나 악한 행위들을 만들어 낸다.”(제23절) 그러나 인격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 자유하게 되며, 선하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처럼 믿음이 의롭게 하며, 또한 선한 행위들도 하게 만든다.”

이를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격과 행위의 이러한 구분은 오늘날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행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다. 누군가 한 번 살인을 하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렇게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을 그들의 과거에 고정시키고, 그들에게서 미래를 탈취한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이와 전혀 다르다. 즉, 우리는 사람들의 인격을 그들의 악한 행위들로부터 구분하여, 악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내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인격들은 존중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감옥에 앉아 있던 국회의 앉아 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인간존엄을 존중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열어두며 그들의 삶이 변화될 가능성들을 신뢰한다.

다시 루터에게로 돌아가 보자. 모든 선한 행위들은 이웃을 위한 사심없는 사랑으로부터 일어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위하여 이웃에게 봉사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신앙 안에서 모든 자기사랑과 모든 자기증오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자유롭게” 되어, 기꺼이 스스로 자기 이웃의 종이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이웃을 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이웃을 그렇게 대한다. “보라, 그렇게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즐거움이 흘러 나오며, 사랑으로부터 자유롭고도 자발적이며 즐거운 삶 즉, 대가없이 이웃을 섬기는 삶이 흘러나온다.”(제27절) 하나님은 우리를 “대가없이” 도우셨다. 따라서 우리도 자발적으로 대가없이 돕는 것이지, ‘너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한다’는 식의 상호호혜성에 근거해서가 아니다. 사랑은 언제나 앞서서 일어나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랑은 자유로우며, 창조적이고, 선물이다.

마지막으로 그 논문의 요약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자신의 이웃들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이웃들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넘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며,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은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아래로 내려가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벗어나 있는데, 믿음을 통하여 자기를 벗어나 하나님 안에 있고 - 사랑을 통하여 자기를 벗어나 사랑받는 사람들 안에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에 의해 발견되고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는 행복 앞에 있다.

II. 보완작업

죄의 희생자들의 해방과 칭의

이 두 번째 장에서 나는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믿음 안에서 죄의 행위자들의 자유로부터 믿음 안에서 죄의 희생자들의 자유로 옮겨 보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만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펼쳐지려면, 죄의 행위자들의 칭의에 죄의 희생자들의 칭의가 동반되어야 한다. 죄인을 위한 복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희생자들을 위한 복음도 있는가? 유럽-로마의 문화환경에서는 일방적으로 죄의 행위자 위주로 방향설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의 희생자들을 잊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없는 악한 폭력의 희생자(victim)가 되었기 때문이다.

루터가 자신과 특별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사도 바울도 이미 죄의 행위자 위주로 방향설정되어 있어서 희생자를 잊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아비판적으로 진심을 다해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7:19-20)

여기서 바울은 죄를 초인격적인 힘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을 죄의 노예로 이해하고 있다. 바울은 죄 안에서 노예됨을 탄식하면서 자신을 이러한 노예됨

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다. 거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왜 바울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자신이 행한 악의 피해자들, 행하여야 할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피해자들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는가? 바로 여기에 바울로부터 루터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은총론 안에 커다란 빈틈이 드러난다.

“내 안에 거하는 죄”와 그 죄의 노예인 나에 관한 바울의 표현들을 공관복음서들의 예수와 비교해 보자. 그러면 예수의 우선적인 시선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소외된자들에게 가 있으며 가난한 백성을 위하여 “한탄하고” 있음이(마9:36)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예수의 시선은 죄의 노예들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희생자들을 향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가져다 준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의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편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의란 “불의와 폭력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만드는 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의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선과 악을 판단하여 결정짓는 의가 아니요 또한 단지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의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는 창조적인 의요, 의를-창조하며 의를 세우는 의이다. 이것을 “칭-의(Recht-fertigung)”라는 종교개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Justitia justificans*[의롭게 하는 의]를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죄의 희생자의 칭의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 보기로 하자.

1. 자신의 자유에 관한 논문에서 루터는 처음부터 오직 죄의 행위자들과 죄의 노예들만 주시하였다. 따라서 루터는 사람들도 오직 그들의 선하고 악한 행위들을 주체로만 보고 있다. 그러나 루터는 다른 사람들이 행한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당하는 사람들의 고난을 주시하지 못하고 있다. 루터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내부로부터 외부로 향하며, 영혼으로부터 육체로, 나무로부터 열매로, 인격으로부터 행위로 향하고 있지, 그 반대 방향으로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불의와 폭력의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주체가 아니다. 오히려 희생자들은 낯선 행위의 대상이 된다. 희생자들은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악한 의지에 노출되어 있다. 희생자들의 영혼은 외부로부터 상처를 입고, 굴욕, 모욕, 폭력, 고문 그리고 자신들의 자존 파괴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그 영혼의 인격은 폭력의 가해자들의 악한 행위들을 이겨내지 못하며, 오히려 그러한 악한 행위들에 굴복하고 만다. 어떻게 그러한 죄의 희생자들이 하나님 없는 권력과 인간파괴적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폭력으로 고

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의를 세우시는가? 희생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들의 굴욕으로부터 구원받는가?

2. 루터는 말하기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영혼은 또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영혼의 기쁨과 고통에도 참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며 사랑의 영은 공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감을 위한 더 강력한 표현은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함께 아파하심과 함께 고난당하심이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에서 무감정적인 하나님, 무관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해 있으며, 하나님은 노하기도 하시고 사랑하기도 하시며, 자신의 백성의 운명에 참여한다. 이스라엘이 겪는 일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겪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다. 그리스도의 수난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수난사이기도 하다. 영혼과 하나님의 연합은 공감의 연합(unio sympathica)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면서 동시에 심령이 상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사57:15).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며,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하여 의를 세우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낮은 것을 바라보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키시되 그들의 고통과 죄와 함께 지키신다. 수학자였던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는 자신의 아들이 21세의 나이로 죽었을 때 자신의 해박한 저서 “과정과 실제”(Process and Reality)에서 “하나님은 이해하시면서 함께-고난받는 분이다”라고 쓴 바 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들이 슬픔의 쇠막대기 아래 부서질 때
그 때에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동일한 아픔이 있다.”

3. 루터는 영혼의 죄들과 그리스도의 의 사이에 일어나는 “즐거운 교환”에 관하여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수난은 우선 죄의 희생자들과 함께 하는 위로의 연대이다. 복음서들은 그리스도의 수난사를 희생자들의 운명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길로 설명한다. 그리스도는 체포된다. 그리스도는 고문을 당하고, 자신의 가장 친했던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으며, 자신의 백성의 제사장들은 그로부터 등을 돌린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를 로마에 항거하는 지도자요 인류의 적으로 보고 십자가에 못박음으로써 처참하게 죽인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것세마

네로부터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암흑의 밤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다.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지만, 그 자신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스스로 잃어버린 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까지 함께 가신다.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예수는 자신의 수난의 길에서 자신처럼 그렇게 굴욕당하고, 고문당하고, 버림받은 희생자들에게로 하나님을 이끌어 들인다. 그리고 불의와 폭력의 희생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위기에 처해있는 자신들의 하나님의 형제들을 인식할 수 있다. 시험에 들고 죽으시는 그리스도는 시험에 들고 죽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가 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죽음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로 이끈다.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많은 십자가들 사이에 서있다. 그 수많은 십자가들이란 네로 황제로부터 히틀러의 죽음의 수용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수용소 군도와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독재자들의 압제 아래 “실종된 자들”에 이르기까지, 비인간적인 역사 속에서 폭력을 저질렀던 자들의 유혈의 길에서 있는 십자가들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희생자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버림받은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표시이다. “오직 고난 받는 하나님만 도울 수 있다.”라고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자신의 죽음의 감방에서 쓰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죄의 희생자들과 동일시한다는 사실로부터 “최후의 세계심판”(마25)에 관한 비유라는 대 서사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즉, “굶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 이방인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갇힌 자들”이 그리스도의 자매요 형제들이다. 즉, “너희가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굶주렸고 ... 목말랐으며 ... 갇혔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자들에게 한 것에 따라 심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희생자들과 매우 동일시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희생자들의 관점에서 가해자들을 심판한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연대적 기독교론’이며, 이는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이 오래 전부터 간과해 왔던 것이다. 만일 루터의 표현을 수용하여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믿음으로 상처입고, 굴욕당하며, 버림받은 영혼은 상처입고, 굴욕당하며 버림받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폭력당한 영혼을 자신의 두팔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다. 이는 그들을 자신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 풍성한 생명

속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4. 이것은 실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의 행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고해 성사와 죄용서, 죄의 고백, 참회 그리고 회복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불의와 폭력과 같은 죄의 희생자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앞의 것과 비교할 만한 아무 것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다. 내 경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a) 오직 진리만이 희생자들을 자유롭게 만든다. 불의와 폭력의 희생자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진 고통으로부터만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굴욕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성폭력의 희생자들에게는 자신들이 당한 상처 위에 치욕이 더해진다. 그것은 자주 그들의 입을 평생동안 다물게 만든다.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들의 인간존엄을 인정받아야 하고 또 자신들이 당한 것이 불의라는 것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의식하기 위해서 사랑의 보호공간이 필요하다. 자기증오와 자기동정은 도움이 못된다. 다시 회복된 자기존엄만이 비로소 희생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당한 고통을 넘어서게 만든다. 범죄자의 죄의 고백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희생자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희생자들은 범죄자에게 얻메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며,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주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희생자들은 영원히 “희생자”로 남아서는 안된다.

b) 이처럼 깊은 굴욕으로부터 벗어나 삶에 대한 철저한 긍정을 받은 다음에 이루어질 다음 단계는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자신의 삶 속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악을 극복하는 일이다. 불의를 당하는 모든 사람은 복수를 꿈꾸게 된다. 그러나 보복은 그 사람이 겪었던 악을 증대시킬 뿐임을 우리는 잘 안다. “지속적으로 생산적인 악은 (악을) 잉태할 수 밖에 없다.”(괴테).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바울은 롬12:24에서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살인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역시 살인자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바울은 이어 나간다. 여기서 관건은 가해자가 아니라, 바울을 노예로 만들었던 악이다. 그러한 악과 대항하여 오직 선으로만 싸울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악으로부터 해방된 악의 노예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선한 일을 하게된다: 즉,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괴롭히는 수치와 치욕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증오와 복수로부터 그리고 모든 악몽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킨다. 죄의 용서는 희생자들의 왕적인 권리이다. 그

러한 권리는 희생자들을 가해자들보다 더 높이며, 희생자들을 왕으로 만들며, 희생자들을 모든 것의 자유로운,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주로 만든다.

끝으로 나는 그리스도인됨에 관한 몇 가지 테제를 과감하게 시도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루터는 자신의 문서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의 자유와 사랑 안에서의 봉사정신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희망은 어디에 남아 있는가?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미래의 상속자이다. 그 미래에는 더 이상 주인도 없고 종도 없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사랑 안에서 자신의 이웃의 권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러나 그 뿐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인간의 유혈의 역사 위에 그리고 고난으로 시험받은 이 땅 위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의의 태양을 희망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처럼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의의 태양이여, 떠오르라!”(Sun of Righteousness, Arise!)

독일어로 표현하자면: “Sonne der Gerechtigkeit, gehe auf in unserer Zeit.”

우리가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어떤 자유를 가져다 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빵을 가져다 주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는 곳이라면 언제나 우리는 “의가 거하는”(벧후3:13) 저 땅을 선취적으로 앞당겨 취하게 된다. 우리가 수백년간에 걸쳐 흑사하고 착취한 지구에 대하여 가해왔던 상처들을 치유하는 곳이라면 언제나 우리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상속자들이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남아있어야만 한다.”